

김희재 “정부 COP33 유치 로드맵 마련”

남해안남중권, 기후위기대응 선도지구 전환 필요 특별법 제정, 컨트롤타워 설립 등 후속 조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이 28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그간 유치를 추진해 온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아·태지역 내에서 경쟁을 벌여온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했다. 대신 33차 총회(COP33)를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와 유치 양보로, 13년간 이어져 온 132만 남해안남중권(전남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경남 진주·사천·고성·남

해·하동·산청) 시·군민의 염원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됐으며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외교부가 김 의원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동 지역 산유국의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 지원 등 글로벌

또한 다음달 1-2일 영국에서 열리는 COP26의 아태그룹 회의에서 양국 간 협의를 설명할 계획이라며, 향후 아랍에미리트의 지지가 COP33 유치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희재 의원은 “정부가 COP33 유치와 남해안남중권으로의 선 개최지 결정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해안남중권 시·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COP28 유치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거듭나려 했던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염원을 고려해 탄소집약 산업지역에서 기후위기대응 선도지구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 기후위기대응 총괄 컨트롤 타워 설립, 남해안 생태계를 활용한 탄소중

립 블루 뉴딜 추진 등을 통해 남해안남중권을 기후위기대응선도지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당과 협의해 남해안남중권의 기후위기대응 선도지구 전환을 대선공약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현재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3백만 톤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18.2%를 차지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대응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수(50.5백만톤), 광양(45.3백만톤), 하동(29.2백만톤)이 전체 배출량의 9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안남중권은 2050년 탄소중립과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석유화학, 철강, 석탄발전의 친환경 연료 전환,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개선 등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여의도 클럽

주철현, 특별교부금 26억9천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이 28일 여수시 지역 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2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여수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개축 사업 17억8천800만원, 한영고등학교 생활관 시설 보수 및 별관동 화장실 개선 9억200만원 등이다.

여수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은 1981년 2월 준공 돼, 40년이 넘는 노후화된 시설로 학생들의 교육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다목적강당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전남교육청 개축심의를 거쳐, 안전



사고 예방에 선제대응이 절실했다. 한영고등학교는 생활관 노후화와 함께 별관동 화장실 시설보수가 시급했다.

주철현 의원은 “두 학교를 위해 확보한 27억원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수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발굴하고 해결해, 지역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소병철, 특별교부세 13억3천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이 28일 2021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대석초(5.8억원) ▲신흥초(4억원) ▲낙안초(3.4억원) 등 모두 13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석초는 2000년 개교 이후, 보수 및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화장실은 아직까지 구형 변기를 사용하고, 악취가 심해 이용에 불편함을 주고 위생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신흥초는 1997년 개교시 설치된 분관동 알루미늄 외부장호가 전체적으로 낡아 창틀이 틀어지고 단차가 발생하여 소음 및 비갈 공기 유입 차단 기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다. 또한 파손된 창틀과 유리창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



생할 우려도 있어 시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낙안초도 1988년 건축된 분관동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창호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창호 부식 등으로 단열효과가 미비하여 겨울철 추위에 취약해 조속히 창호가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은 “신민회·한춘목 의원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에게 관내 열악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꾸준히 경청했다”며 “교내 개보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교육부 특교 확보에 열중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李 38.9% vs 洪 44.4%...李 40.9% vs 尹 45.3%”

4자 구도선 이재명-윤석열 초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밖 격차로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35명을 대상으로 양자 가상대결을 조사한 결과, 홍준표 의원이 44.4%의 지지율을 얻어 이재명 후보(38.9%)에 5.5%포인트 우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5.3%로, 이 후보(40.9%)에 오차범위 이내인 4.4%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43.8%로 이 후보(40.1%)를 3.7%포인트 앞섰다.

이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의 양자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40.0%의 지지율로 유 전 의원의(36.1%)보다 3.9%포인트 높았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하는 4자 대결구도에서는 이 후보가 근소한 격차로 우위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면 이 후보가 34.6%로 윤 전 총장(34.4%)과 초접전 양상이었고, 심 후보 4.4%, 안 대표 4.0% 순이었다.

홍 의원과의 4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로보월드’ 참관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협동로봇 활용 프로젝트관의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가 34.3%, 홍 의원이 29.3%, 안 대표가 5.7%, 심 후보가 5.1%의 지지율을 각각 나타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후보 경쟁력을 묻

는 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 38.2%로 가장 높았고 윤 전 총장 33.1%, 유 전 의원의 10.9%, 원 전 지사 4.1%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

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李 음식점 총량제”, 자영업자 죽으라는 얘기”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에 대해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

긴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던가, 앞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잘못된 발언은 주위 담고 사과하면 될 일이지만 (이 후보는)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어제와 같은 논리로 또 반복했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

점 총량제 같은 ‘무공감’, ‘무책임’의 규제 아니다”라며 “대선후보라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노태우 국가장’ 與 일부 반발 여론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에 대해 여론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8일 SNS에 올린 글에서 “국가장 결정 유감”이라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국가장 결정을 통해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조기를 달아야 하는데 5·18 희생자들이 이웃이고 친척인 곳, 광주시와 광주 각 구청에도 조기를 달아야 한다”며 “그런데 광주시와 시의회가 조기를 달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조기를 달지 아니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나”고 물었다.

윤경연 의원 역시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나와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개인적

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강하게 (요청)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며 “군사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분이 있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상처와 마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SNS에 “노태우 씨 국가장 장례위 고문 위촉을 거절했다”면서 “세상을 떠난 분을 예도 함이 마땅하나, 5월 광주와 그 뜻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만 총으로 시작한 고인의 정치가 이제는 책임과 사회로 매듭된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